

친환경 농업 “완효성 비료 각광”

환경오염과 일손을 동시에 줄여 ... 농업용으로 시장확대 가능성

완효성비료는 비료성분이 서서히 녹아 나와 밑거름으로 한번으로 작물의 생육후기까지 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돼 수확 때까지 작물의 안정적인 생육을 도와준다.

따라서 웃거름 주는 노력을 줄일 뿐만 아니라 양분의 이용률도 높아 비료를 적게 주어도 수량이 떨어지지 않으며 비료의 유실량이 적어 환경친화형 비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이용되고 있으나 일반 화학비료에 비해 가격이 비싸 처음에는 잔디, 화훼 등에 많이 활용됐다.

그러나 친환경이 농업의 화두로 부상하고 농촌의 인력 감소가 심각해지면서 손이 덜 가고 비료사용량도 줄일 수 있어 최근에는 농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완효성 복합비료 접촉시비효과 (단위: kg/10a)

구 분	관 행	접촉시비	
		30% 줄여줌	70% 줄여줌
질소시비량	15	10.5	7.5
수 량	460	460	461

자료) 한국비료공업협회

남해화학은 천천히,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의 <시나브로>를 판매하고 있으며 KG케미칼도 <하나로>라는 완효성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6/23>